

CPP필름 과열경쟁 “초읽기”

삼민·삼진등 8000톤이상 증설 ... 기초유분 인상통보로 2종고

OPP필름과 함께 고급 포장재를 주도하고 있는 CPP필름 시장이 울들어 생산기업의 잇따른 증설계획에 따라 용도개발을 통한 수요 다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CPP필름의 93년 생산량은 모두 2만4000톤으로 전체 생산능력 2만7000여톤의 80%선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량은 서통 3000톤, 삼영을 비롯한 나머지 기업이 1000톤 등 모두 4000톤으로 국내 총수요 2만여톤에 따른 과잉물량이 꾸준한 수출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PP 수요현황				(단위 : M/T)
기업명	1992	1993	1994(예상)	PP공급
삼민화학	3,500	6,000	12,000	호남정유, 삼성, 현대
서통	6,000	6,000	6,000	호남석유, 유공
유상공업	4,000	6,000	6,000	호남석유, 현대
삼영화학	3,000	3,000	3,000	호남정유
성일화학	3,500	5,000	5,000	대한유화, 삼성, 호남정유
삼진화학	800	800	3,000	호남석유, 현대
합계	20,800	26,800	35,000	

자료) CRI

또 가격면에서는 원료인 PP가 최근 몇년간 계속적인 하락세이고 가격차에 따른 일본내 수요 급신장 등으로 인해 톤당 2000달러 이상 웃도는 일본제품과의 가격차를 30%이상 벌리며 수출가가 톤당 1700달러~180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내수가는 톤당 165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OPP시장의 빠른 회복과 활발한 해외수출에 따라 식품쪽의 CPP수요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4분기 현재 국내 총생산 능력 2만6800톤의 90%이상 가동율을 보이며 물량확보에 각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들어 93년 증설을 단행한 삼민화학이 또다시 연간 6000톤 규모의 증설을 올 하반기 까지 완료하는 것을 비롯,증설경쟁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던 삼진화학 마저대규모의 증설이 확실시 되는 등 실생산능력이 8000톤이상 늘어나 수요신장율을 감안 하더라도 1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기초유분 (PP)생산기업들이 지난 4월1일 CPP생산기업들을 상대로 톤당 50만원에서 55만으로 10%인상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는 등 인상분위기가 전체시장에 확산되고 있어 식품 포장재를 중심으로 일본시장에 저가·대량공급돼온 CPP필름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증설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는데다 이같은 시장변화요인에 따른 수급변화를 감안, 현재 95%이상의 식품포장용에 한정되어온 CPP의 수요 시장 다변화에 고심하고 있으며 식품을 제외한 직물, 건자재 공업용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5/30>